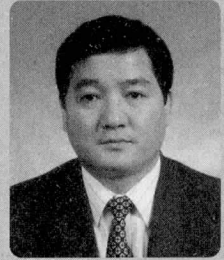


# 우유공급시스템의 개선 우수사례



전 영 일  
전라남도교육청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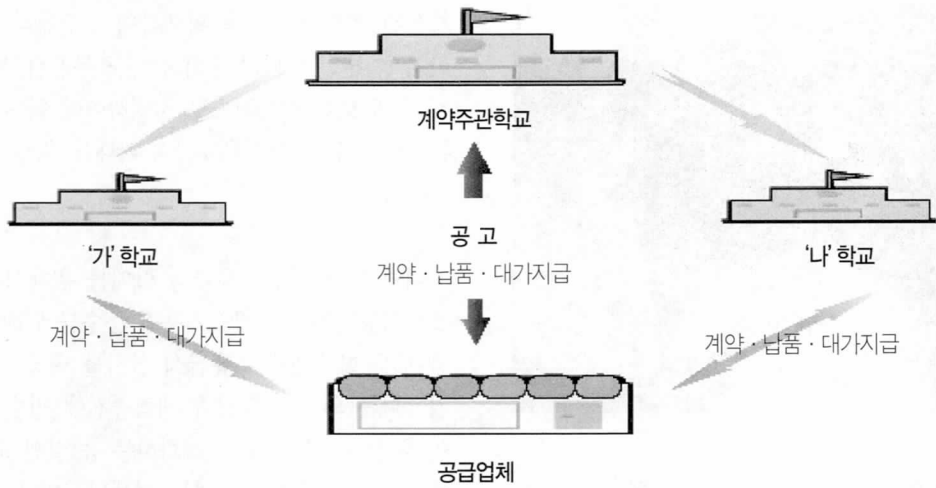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학교우유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체위향상 및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우유소비기반 확보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우유급식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별 편차도 심해 자라나는 2세대의 건강증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한식이 대부분인 학교급식식단 구성상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분인 칼슘의 중요 공급원으로 우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우유를 싫어해서 학교급식우유를 먹지 않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먹고 싶어도 학교가 소규모이거나 도서벽지에 있어 우유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시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소량의 우유를 원거리까지 납품하려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우유급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생들이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칼슘, 단백질 등 필요영양소를 학교급식의 식단 구성에서 충족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생활 형태에서 우유가 제외된 학교 급식내용만으로는 칼슘의 기준섭취량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어떻게 하면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상 도서벽지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및 섬지역이 많은 학생들에게 칼슘, 단백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유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추





【 급식유유 공동구매 계약 추진 흐름도 】

진 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첫 번째로 지리적인 요인이다. 전라남도는 소규모 및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교가 76%이고, 100명 미만교가 50.7%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납품업체가 소량의 우유를 원거리까지 납품하지 않으려는 우유공급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둘째, 원거리 납품시 거래금액이 작기 때문에 공급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여 업체는 학교에 배송비 등 경비 부담을 요구하고, 학교에서는 경비를 부담하느니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여 학교와 업체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셋째, 학교 규모가 작은 도농 소규모 지역과 수송조건이 불리한 도서벽지 및 섬 지역은 단일업체가 없어 한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그 지역의 소매상을 이용하므로 학교에서 계약한 업체의 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업체의 제품을 임의대로 공급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우유의 영양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려는 것 또한 문제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3가지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먼저 우유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구매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컨소시엄(Consortium) 방식의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소시엄 방식이란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공급이 기피되는 도서벽지학교 및 소규모학교와 지역별로 인접한 대규모 학교를 연계한 공동구매제도로 주관학교와 협력학교 간의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추진학교 간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참여업체를 유도하여 원활한 우유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유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추진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우유보조급식 무상 대상학교를 도서벽지학교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로 선정하여 보조급식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유공급 계약 기간을 당초 매년 3월초~익년 2월말인 학년도 계약기간을 당해 연도 1월~12월말인 회계연도로 계약기간을 변경 실시함



으로서, 계약시기가 늦춰짐으로 인한 학기 초 우유 공급에 공백 없이 연계 지원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결과 우유공급시스템 개선으로 소규모학교의 우유공급 기피현상이 감소되어 보다 많은 학교가 우유급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농어촌 성장기 학생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우유급식이 이루어 질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로 보조급식 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우유급식의 혜택을 보게 되었고 더불어 우유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리고 우유공급 계약기간을 개선하였는데 학년 초 및 방학일 등에도 연계 지원하여 우유급식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학교우유급식은 기본적으로 의무급식이 아니고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자율급식이며 급식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일반급식인 유상급식과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인 보조급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도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무상급식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더욱 확대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중·고등학교의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 칼슘기준량 준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학생에게 우유급식 실시를 권장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체력증진에 필수적 식품인 우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우유급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버리거나 남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며 우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영양학적 교육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와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더 필요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및 우유의 영양적 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유급식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정착과 장기적인 우유소비 기반의 조성으로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한다. ☺